

골로새서 윤리 목록 단락(골 3:1-17)의 역할¹⁾

조병수*

어떤 종교든 윤리의 실패는 바로 그 종교의 실패를 의미한다. 윤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가 없다는 점에서 종교의 생명력은 윤리의 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종교에 윤리가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는 종교다운 고상함과 우아함을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종교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이다. 종교와 윤리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것은 치장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뜻이다.

초기 기독교의 생명력도 이런 차원에서 규명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는 윤리를 무한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윤리는 초기 기독교에 내재한 본질이기 때문에 윤리를 외면한 기독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 기독교의 성공은, 물론 유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윤리를 소유하고 있었고 윤리를 교육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²⁾ 이 사실은 오늘날 윤리 실천에서 신랄한 비판에 직면한 우리에게도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 현대의 기독교가 윤리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기독교 그 자체의 실패인 것

*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약학

1) 한글성경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사역(私譯)을 한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은 산본 무지개교회(담임목사 이종근)의 후원에 빚지고 있다.

2) Cf. A. von Harnack, *Die Mission und Ausbreitung des Christentums in den ersten drei Jahrhunderten*, 4. Aufl. (Leipzig: Hinrichsche Buchhandlung, 1924), 220-239.

을 명심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 윤리 강조는 신약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윤리 목록인 미덕 목록(virtue-lists, Tugendkataloge)과 악덕 목록(vice-lists, Lasterkataloge)을 볼 때 어렵지 않게 입증된다. 복음서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분포되어 있는 신약성경의 윤리 목록은 초기 기독교가 윤리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³⁾ 그런데 윤리 목록을 언급할 때 바울의 공헌을 빼놓을 수가 없다. 바울의 서신들에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은 윤리 목록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⁴⁾ 내용에 있어서는 바울의 윤리 목록이 신약성경의 다른 윤리 목록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정교하게 목록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에서 비록 간략하기는 하지만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논문은 먼저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3:1-17)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골로새서 윤리 목록 그룹의 내용

골로새서 3:1-17은 윤리 목록 그룹으로서 세 개의 윤리 목록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두 개는 악덕 목록이며(3:5, 8) 나머지 한 개는 미덕 목록이다(3:12).

3) 신약성경의 다양한 윤리 목록의 소재에 관해서는 B. S. Easton, "New Testament Ethical Lists," *JBL* 51 (1932), 1-12; A. Vögtle, *Die Tugend- und Lasterkataloge im Neuen Testament. Exegetisch, Religions- und Formgeschichtlich untersucht*, Neutestamentliche Abhandlungen Bd. 16, Heft 4/5 (Münster: Verlag der Aschendorffschen Verlagsbuchhandlung, 1936), 1, 13을 참조하라.

4) V. P. Furnish, *Theology and Ethics in Paul* (Nashville: Abingdon, 1968), 86에서 바울이 39개의 악덕 목록에, 42개의 악덕 용어를 사용했고, 16개의 미덕 목록에 20개 정도의 미덕 용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악덕 목록(3:5):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악덕 목록(3:8):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미덕 목록(3:12): 긍휼(의 마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목록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사나 명사를 접속사 없이 또는 접속사를 중첩하여⁵⁾ 열거하는 바울의 열거법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열거법은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을 형성하는 주요 방식이다. 또한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에서 두 개의 악덕 목록과 한 개의 미덕 목록이 공통적으로 각각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현저한 특징이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은 어느 정도 종말론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시간구분 표시인 “전에”와 “이제는”을 사용하며, “벗다.”와 “입다.” 같은 행위를 대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⁶⁾

이제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이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문맥으로 볼 때 윤리 목록의 서론인 골로새서 3:1-4는 형식에 있어서 이단 논박의 마지막 부분인 골로새서 2:20-23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후자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으로 시작하듯이, 전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면”이로 시작하기 때문이다.⁷⁾ 윤리 목록의 서론에서 주제어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인데(3:1), 이것은 다시 “위의 것을 생각하

5) Vögtle, *Tugend- und Lasterkataloge*, 13.

6) E. Schweizer, “Gottesgerechtigkeit und Lasterkataloge bei Paulus (ink. Kol und Eph),” J. Friedrich, W. Pöhlmann und P. Stuhlmacher, eds., *Rechtfertigung. Festschrift für Ernst Käsemann zum 70. Geburtstag* (Tübingen: Mohr Siebeck/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1976), 471.

7) 물론 이 둘 사이에는 문법에도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골로새서 2:20은 의문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다루고 골로새서 3:1은 명령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보충되면서(3:2a)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로 대립된다(3:2b). 그런데 윤리 목록의 서론은 이와 같은 찾음과 생각함을 형성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 한번은 “...라면”(εἰ) 문장을 사용하고(3:1), 다른 한번은 “이는...”(γάρ) 문장을 사용하며(3:3), 마지막으로 직설법 문장을 사용한다(3:4).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찾음과 생각함을 형성하는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론이다. 윤리 목록의 서론은 신자를 철저히 기독교론적으로 규정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남(συνεγείρεσθαι, 3:1),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임(κρύπτεσθαι σὺν, 3:3),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남(φανεροῦσθαι σὺν, 3:4)은 신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 모든 것이 기독교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는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와 “함께”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에서 서론에 이어 등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융합되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악덕 목록 그룹이다(3:5-11).

첫째 악덕 목록 그룹(3:5-7)의 도입구(3:5a)는 서론에 나왔던 대립적 주제어인 “땅의 것”(τὰ ἐπὶ τῆς γῆς, 3:2)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서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⁸⁾ 물론 이 도입구에서 “땅의 것”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명사화된 상태에서 사용되지 않고 “지체들”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모두 다섯 가지 악덕(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담고 있는 목록이 제시되는데(3:5b), 그 가운데 마지막 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3:5c). 여기에 각각 다른 전치사로 이끌리는 두 개의 관계절이 이어진다. 첫째 전치사적 관계

8) “위의 것을 찾으라”(3:1)를 “위의 것을 생각하라”(3:2)로 설명하듯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3:2)는 “땅의 지체들을 죽여라”(3:5)로 설명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절($\delta\iota'$ 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현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3:6), 둘째 전치사적 관계절($\epsilon\nu$ οἷς)은 정교한 교차대조 기법⁹⁾을 사용하여 신자들의 과거 모습을 묘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3:7).

둘째 악덕 목록 그룹(3:8-11)은 “이 모든 것”(τὰ πάντα)이라는 포괄어¹⁰⁾를 사용하여 다섯 가지 악덕(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을 제시한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너희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3:9a), 두 가지 분사, “옛 사람을 벗어버리다.”(3:9b), “새 사람을 입는다.”(3:10)가 달려 오고¹¹⁾, 새 사람에게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결론적 부사구(3:11)가 언급된다.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에서 미덕 목록 그룹(3:12-17)은 다섯 가지 미덕[공홀(의 마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제시한다(3:12). 미덕 목록에는 두 가지 분사, “서로 용납하다.”(3:13a)와 “피차 용서하다.”(3:14b)가 이어지며, 사랑을 강조하는 명사문이 더해진다(3:14). 여기에 두 가지 3인칭 명령법이 따라온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핍강”에 관한 진술이다(3:15). 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진술이 언급되는데(3:16a), 여기에 몇 가지 분사가 걸든다: 가르치고 권면하다(3:16b), 찬송하다(3:16c), 감사하다(3:17).

9) 7절의 교차대조 기법은 다음과 같다:

7a	7b
ἐν οἷς	ὅτε
καὶ ἡμεῖς περιεπατήσατέ	ἐζήτε
ποτε	ἐν τούτοις

10) 골로새서에서 πᾶς- 포괄어 용법은 W. Schenk, “Der Kolosserbrief in der neueren Forschung (1945-1985),” *ANRW* 25.4, 3332를 참조하라.

11) 이 두 분사는 직설법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과 연계된 명령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Cf. P. Pokorný, *Der Brief des Paulus an die Kolosser*, ThHNT 10/I (Berlin: Evangelische Verlaganstalt, 1987), 142f.

2. 골로새서 윤리 목록 그룹의 역할

바울의 윤리 목록이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지 오래전부터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견해들이 경쟁적으로 분분하게 제기된다.¹²⁾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퍼니쉬(Furnish)는 대체적으로 바울의 윤리 목록이 기독교적이든 비기독교적이든 전통적인 자료들로부터 출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전개했다.¹³⁾ 그

12) 뵈그틀레(Vögtle)는 1932/33년 Freiburg 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에서 신약성경의 미덕 목록과 악덕 목록을 종교사와 양식사를 따라 연구하면서 H. Grotius(1679)로부터 H. Preisker(1933)까지 윤리 목록의 배경에 대한 주장들을 조사했다(Vögtle, *Tugend- und Lasterkataloge*, 2-9). 그의 조사에 따르면, 학자들마다 윤리 목록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 목록이 로마의 문학에 빚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H. Grotius 1679). 윤리 목록이 헬라 영향권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A. Dieterich, 1893; H. Lietzmann, 1928; H. Preisker, 1933). 이에 반하여 어떤 사람들은 윤리 목록이 유대적 자료에 빚지고 있는 것으로 믿으며(P. Wernle, 1897), 특히 유대교의 회심자 신앙교육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A. Seeberg, 1903). 그러나 차츰 윤리 목록의 기원이 복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그래서 어떤 이는 헬라 밀교적 뿌리와 유대 구약적 뿌리를 제시하며(E. von Dobschütz, 1902), 어떤 이는 생각의 죄를 다루는 스토아 철학과 행위의 죄를 문제시하는 유대적 요소의 결합을 제시한다(B. S. Easton, 1932). 흥미롭게도 이 주장들은 조금씩 변형되어 지금까지도 반복된다.

13) Furnish, *Theology and Ethics in Paul*, 81. 그러나 그는 바울의 윤리가 합리주의적인 헬라(스토아 철학) 윤리의 범주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Dibelius의 견해에는 철저히 반대한다. 헬라 윤리는 주로 개인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에 바울에게는 사회적인 성격, 특히 공동체를 위한 윤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84), 또한 퍼니쉬에 의하면 헬라 윤리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인정하기에 윤리를 요구하지만, 바울은 주님에 대한 의존 때문에 윤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88f.; cf. Pokorný, *Kolosser*, 138). 다시 말해서 전자에게는 “본성에 따라”(κατὰ φύσιν)가 윤리의 동인이지만, 후자

는 바울은 이런 자료들이 구약성경과 유대적인 사상에 일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비판력을 발휘하여 자료들을 선별한 끝에 자신의 사상 틀에 흡수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¹⁴⁾ 분명히 바울에게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바울의 윤리 목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말을 보면 쾨그틀레도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보인다. “(고대)세계의 문학에 들어있는 악덕 목록만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바울의) 목록들은 우선 그것들의 특성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것들의 형성에 따라 연구되어야 한다.”¹⁵⁾ 그러면 바울의 윤리 목록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형성이란 무엇인가?

쾨그틀레는 바울의 윤리 목록이 대부분 권면의 문맥에서 언급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런 윤리 목록이 주로 선교 설교와 교회 설교라는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¹⁶⁾. 먼저 그는 윤리 목록이 서신에 기록되기 이전에 선교를 위한 구두 설교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악덕을 지적하여 사람들의 죄의식을 깨우쳐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다고 말한다.¹⁷⁾ 또한 쾨그틀레는 바울의 윤리 목록이 두 가지 용도로 나누어지는 교회 설교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한다.¹⁸⁾ 그 첫째 용도는 목회 과제이다.

에게는 “성령에 따라”(κατὰ πνεῦμα)가 윤리의 동인이다. 게다가 헬라 윤리는 그 목적이 본질적으로 교육적인데, 이에 비하여 바울은 교회의 상황을 해결하려는 데 윤리의 목적이 있다(91).

14) Furnish, *Theology and Ethics in Paul*, 81f.

15) Vögtle, *Tugend- und Lasterkataloge*, 7.

16) Vögtle, *Tugend- und Lasterkataloge*, 10, 18f.

17) Vögtle, *Tugend- und Lasterkataloge*, 20.

18) Vögtle, *Tugend- und Lasterkataloge*, 22, 28, 39.

초대교회는 윤리적으로 왜곡된 세상과 마주서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새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했던 첫 번째 항목은 이방인들의 모든 악덕,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 음란, 나태, 탐욕을 거절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뢰그틀레는 권면적인 윤리 목록들에 자주 반복되는 악덕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신자들의 실제적인 상황(근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뢰그틀레는 특히 악덕 목록과 관련하여 죄는 벌을 불러 일으킨다는 생각이 초대교회의 설교에 전적으로 익숙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윤리 목록이 도덕 문답으로 기능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의 윤리 목록은 신자가 옛날의 이방적인 삶에서 본질적으로 분리된 것을 묘사하는 것이며, 신자에게 새 창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립된 하나님의 의를 사랑의 실천으로 관철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 목록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며¹⁹⁾,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 기본 자세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다.²⁰⁾

그러나 바울의 윤리 목록의 특성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이단 논박이다. 바울의 윤리 목록은 선교와 목회 뿐 아니라 이단 문제라는 상황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골로새서와 같이 이단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편지들에서는 바울의 윤리 목록 그룹이 이단을 논박하는 신학(특히 기독교론!)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김정훈의 말대로, “(골로새 이단에 대항하여) 바울은 고급한 기독교론을 제시하기를 원했고, 그 기독교론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들을 추출해내기를 바랐다”²¹⁾ 골로새서의 교리 부분과 윤리 부분은 서

19) P. T. O'Brien, *Colossians, Philemon*, Word Biblical Commentary 44 (Waco: Word Books, 1982), 180.

20) Pokorný, *Kolossar*, 138.

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²²⁾ 왜냐하면 이 둘은 다 같이 골로새 이단에 대하여 기독교의 응답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골로새서는 이단의 공격에 대한 결정적인 방어를 제시하기 위하여 교리와 윤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은 일차적으로 신학을 반영할 뿐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신학은 이단 논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윤리 목록 그룹에도 이단 논박의 성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은 신학 실천과 이단 논박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제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이 보여주는 두 가지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2.1. 윤리 목록 그룹에 의한 신학(기독론)입증

먼저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이 신학을 반영하면서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지 살펴보자. 골로새서의 신학에서 중점은 기독론이다. 기독론은 골로새서 1:15-20의 “그리스도 찬양시”와 그 문맥에서, 골로새서 2:9-15의 이단 설명 중에 나오는 기독론과 그 문맥의 논증에서 잘 나타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학과 윤리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바울의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면 그의 윤리도 그리스도 중심적이다.²³⁾ 기독론은 기독교적인 윤리를 해산하고 양육한다. 이것은 쉬라게(Scharge)가 잘 지적한 것처럼, 기독론이 윤리에 기초를 제공할

21) J. H. Kim, *The Significance of Clothing Imagery in the Pauline Corpus*, JSNT.SS 268 (London/New York: Clark, 2004), 154.

22) T. W. Martin, *By Philosophy and Empty Deceit. Colossians as Response to a Cynic Critique*, JSNT.SS 11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204.

23) T. B. Maston, *Biblical Ethics: A Guide to the Ethical Message of the Scriptures from Genesis through Revelation*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2), 210.

뿐만 아니라 윤리에 방향을 제시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²⁴⁾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신자들의 윤리적인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⁵⁾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골로새서에는 기독교와 기독교적인 윤리를 결합해서 진술하는 경우들이 많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신학은 그 범주 안에서 활동하는(περιπατεῖν) 윤리를 요구한다(2:6).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실천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을 그리스도와의 일치라고 부를 수 있다.²⁶⁾ 골로새서의 윤리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윤리라는 사실을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들을 다음과 같이 면밀하게 살펴볼 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1.1. 윤리 목록의 서론(3:1-4)

윤리 목록의 서론(3:1-4)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범주에서 움직인다. 기독교가 윤리를 요구하는(“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중요한 근거이다. 기독교는 “위의 것들”(τὰ ἄνω)에 대한 추구와 “땅의 것들”에 대한 거절을 결정하는 동인이다. “땅의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 찬양시(1:15-20)에서 두 번 언급되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창조 대상이며(1:16)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화복 대상으로(1:20) 우주적인 성격을 가진다.²⁷⁾ 그런데 윤리 목록의 서론에서는 “땅의 것들”이 다른 성격으로

24) W. Schrage, *Ethik des Neuen Testaments*, NTD Erg. 4, 5. Auflage (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1989), 255.

25) E. Lohse, “Christologie und Ethik im Kolosserbrief,” W. Eltester und F. H. Kettler, eds., *Apophoreta. Festschrift für Ernst Haenchen zu seinem siebenzigsten Geburtstag am 10. Dezember 1964*, BZNW 30 (Berlin: Töpelmann, 1964), 156.

26) Schrage, *Ethik des Neuen Testaments*, 255.

나타난다. 그것은 우주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간론적인 영역을 가리킨다.²⁸⁾ “땅의 것들”은 앞서 골로새서 2:20-23에 언급된 이단의 교훈과 실행을 지시하며, 뒤에 골로새서 3:5에 나오는 악덕 목록을 묘사한다.²⁹⁾ 이처럼 같은 용어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스도가 창조와 화복에서 우주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를 믿는 신자는 당연히 인간론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지시받기 때문이다. 새로운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라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³⁰⁾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차원에서 “땅의 것들”을 창조하고 화복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인간론적인 차원에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죽어야 한다. 이렇게 우주론적인 기독교인이 인간론적인 윤리를 결정한다.

2.1.2. 첫째 악덕 목록 그룹(3:5-7)

첫째 악덕 목록은 “너희는 죽이라”(νεκρώσατε)는 말로 시작한다

27) E. Schweizer, *Der Brief an die Kolosser*, EKK 12 (Zürich: Benziger, 1976), 69: “Das ist nur verständlich, wenn kosmisch, nicht anthropologisch gedacht wird.”

28) Schweizer, *Kolosser*, “Deutlich wird, daß ‘oben’ und ‘auf der Erde’ nicht eigentlich topographische Bestimmung sind, sondern eine Sphäre bezeichnen, durch die man sich bestimmen läßt.” 133; Cf. O’Brien, *Colossians*, 164. 그렇다고 해서 “위의 것들”과 “땅의 것들”을 “영”과 “육”이라는 표현과 병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pace Schweizer and O’Brien). 왜냐하면 “위의 것들”에는 분명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는 말이 덧붙여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어느 정도 공간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Cf. I. K. Smith, *Heavenly Perspective: A Study of the Apostle Paul’s Response to a Jewish Mystical Movement at Colossae*,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326 (London/New York: Clark, 2006), 174-181.

29) O’Brien, *Colossians*, 158.

30) Pokorný, *Kolossians*, 136.

(3:5). 이 요청은 하나의 결론(“그러므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유가 이미 앞에 제시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할 근거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3:3)에서 찾을 수 있다.³¹⁾ 무엇보다도 이런 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너희는 죽었다”에서 “너희는 죽이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²⁾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문구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표현하므로,³³⁾ 첫째로 “너희는 죽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기시킨다(참조, 1:21f.).³⁴⁾ 둘째로 “너희는 죽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한 생명을 확신시킨다(참조, 2:12f.).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차원에서 신자의 죽음과 생명은 기독교론에 영향을 받는데, 그 기독교론도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을 말하는 기독교론이다. 기독교론은 신자의 과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신자의 과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이 되는 악덕 목록을 따르는 것이었다(3:7).³⁵⁾ 신자들은 “전에 악한

31)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σὺν τῷ Χριστῷ ἐν τῷ θεῷ)는 “너희 생명이...감추어졌음이라”(ἡ ζωὴ ὑμῶν κέκρυπται)를 수식할 뿐 아니라 “너희가 죽었다”(ἀπεθάνετε)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같은 용례를 위해서 골로새서 2:20에 나오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εἰ ἀπεθάνετε σὺν Χριστῷ)을 참조하라.

32) Cf. Schrage, *Ethik des Neuen Testaments*, 249; Pokorný, *Kolosser*, 139; M. Barth/H. Blanke, *Coloss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 B. Beck, trans., AncB 34B (Doubleday: The Anchor Bible, 1994), 398.

33) O'Brien, *Colossians*, 170.

34) O'Brien, *Colossians*, 176; A. Standhartinger,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es*, S.NT 94 (Leiden / Boston / Köln: Brill, 1999), 230.

35)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각주 9번), 과거 악행의 강도를 교차 대조법으로 강조한다!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고(1:21),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지만(2:13),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태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2.1.3. 둘째 악덕 목록 그룹(3:8-11)

둘째 악덕 목록에서 주제는 “너희는 내어버리라”(ἀπόθεσθε)는 것이다(3:8). 이것은 종말론적인 시간 지시어(“전에”, “이제는”)와 바로 앞 절과 기묘하게 대조를 이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악덕 목록에는 명령문 “너희가 거짓말 하지 말라.”(3:9a),³⁶⁾ 두 가지 분사 “옛 사람을 벗어버리다.”(3:9b), “새 사람을 입는다”(3:10), 결론적 부사구(3:11)가 덧붙여 있는데, 이 부가적인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는 윤리의 기독교론적인 동인을 강하게 부각시킨다. 첫째로 윤리와 관련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ἀπεκδυσάμενοι)”(3:9b)는 요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벗어버림”(ἀπεκδέσθαι ἀπέκδυσις)이라는 표현은 이미 앞에서 두 번 사용되었다(2:11, 15). 우선 벗어버림 비유는 기독교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르케들과 엑수시아들을 벗어버렸다(ἀπεκδυσάμενος)”(2:15)는 표현을 볼 때 의심할 바가 없다. 아르케들과 엑수시아들이 어떤 존재들이건 간에³⁷⁾ 그리스도 자신이 유일한 아르케이고(1:18) 어둠의 엑수시아를 정복했으며

36) 이것은 앞에 언급된 악덕 목록에 나오는 모든 악덕들을 요약한다. Cf. Barth/Blanke, *Colossians*, 408; J. G. D. 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Carlisle: Paternoster, 1996), 220; Pokorný, *Kolosser*, 142.

37) 이들의 정체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골로새서에서 이들의 정체를 판가름하게 하는 가장 좋은 구절은 골로새서 1:16이다. 여기에서 아르케들(ἀρχαί)과 엑수시아들(ἐξουσίαι)은 여러 존재들과 비교하여 설명되기 때문이다.

(1:13) 또한 모든 아르케와 엑수시아의 머리이기 때문에(2:10), 다른 어떤 존재들이 아르케와 엑수시아의 신분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신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요청받는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2:11). 그런데 이 할례는 다시 “육의 몸을 벗어버림”(2:11)으로 설명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육의 몸을 벗어버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모든 아르케와 엑수시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ἐν ᾧ)만 가능하다(2:10f.).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르케와 엑수시아를 벗어버렸듯이, 신자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³⁸⁾ 그리스도께서 아르케들과 엑수시아들의 머리라는 기독교론은 윤리를 요구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권면으로 귀결된다.³⁹⁾ 이와 같이 이 단락은 윤리적 권면을 위한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다.⁴⁰⁾

둘째로 주목할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ἐνδυσάμενοι)”(3:10)는 표현이다. 골로새서의 윤리는 “벗어버림” 뿐 아니라 “입음”을 포함한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요청은 바로 다음에 언급될 미덕 목록의 도입어(ἐνδύσασθε)를 선취하는 것이다(3:12).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를 가리킨다(3:10).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κατ’ εἰκόνα) 이루어진다. 이런 변형의 배후에는 창조주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다. “형상”이 (아담-) 기독교론적인

38) Cf. J. Lähnemann, *Der Kolosserbrief. Komposition, Situation und Argumentation*, SNT 3 (Gütersloh: Gerd Mohn 1971), 55; “das scharfe ἀπεκδυάμενοι (3, 9) weist zurück auf die Polemik gegen die kosmischen Mächte(2, 15).”

39) Schrage, *Ethik des Neuen Testaments*, 251.

40) B. C. Hemphill, “The Shape of the Christian Life: An Analysis of Colossians 3:12-15 and the Role of the Virtues in Pauline Ethics,” Ph. 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135.

용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⁴¹⁾ 그리스도 찬양시는 이 사실을 이미 명확하게 밝혀주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1:15). 물론 이런 사실 때문에 골로새서 1:15의 신학적인 의미를 골로새서 3:10에 바로 대입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⁴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동일한 용어를 다른 각도에서 사용함으로써 창조와 구속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기독교론(1:16, 20)에 기초하여 사람의 창조와 구속을 설명하려는 종말론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엿보인다.⁴³⁾ 이 때문에 이 단락의 결론으로 여겨지는 골로새서 3:11은 만유 기독교론을 제시하는 것이다.⁴⁴⁾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의 윤리는 단순히 개인의 결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⁴⁵⁾

마지막으로 이 단락은 결론적으로 하나의 부사구를 제시하여 (3:11a) 새 사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ὅπου οὐκ ἔνι). 새 사람에게는 인종적으로(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교적으로(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사회적으로(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더 이상 차별이 생기지 않는다(참조, 갈 3:28; 고전 12:13).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41) 이 구절은 “두 아담”(the two Adams), “두 창조”(the two creations)와 같은 관계성을 보여준다. Cf. C. F. D. Moule,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2; org. ed. 1957), 119; 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222.

42) O'Brien, *Colossians*, 191; Hemphill, “Christian Life,” 140; Kim, *Clothing Imagery*, 163은 이런 오류를 범한다.

43) Cf. 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222; Kim, *Clothing Imagery*, 164.

44) Hemphill, “Christian Life,” 138.

45) 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222. Cf. Kim, *Clothing Imagery*, 167f.

큰 근거는 바로 다음에 언급되는 기독교론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만유 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3:11b) 만유 기독교론은 이미 그리스도 찬양시(1:15-20)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그리스도 찬양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1:15), 만물 창조의 주역이며(1:16),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선다(1:17)고 노래한다. 또한 그리스도 찬양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시고(1:18),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1:19), 만물을 화복시키신다(1:20). 이렇게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있고(1:16, 17, 19), 만물은 그 안에 있다(1:18)는 그리스도와 만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그리스도는 만유이며 만유 안에 계시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만유 기독교론에 근거하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윤리의 기초인 평등 사상이 형성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기독교의 평등 사상은 만유 기독교론을 실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2.1.4. 미덕 목록 그룹(3:12-17)

미덕 목록의 도입어(3:12)는 이미 앞에서 사용되었다(참조, 3:10). “그러므로”는 두 단락의 인과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 바울은 미덕 목록을 제시하면서 우선 신자의 신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 받은 자로서”(3:12). 흥미롭게도 이 삼중적인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던 것인데, 이제는 신자를 설명하는 전문 용어가 되었다.⁴⁶⁾ 그러나 신자를 정의하는 이 표현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⁴⁷⁾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어떤 긴밀한 연관성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

46) Moule, *Colossians*, 122; O'Brien, *Colossians*, 197.

47) 골로새서 3:1-17에는 하나님 중심적인(Theocentric) 사상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3:3, 6, 10, 12, 16, 17).

아계심으로써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듯이(3:1),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미덕 목록에는 두 가지 분사 구문(ἀνεχόμενοι χαρίζόμενοι)이 부가되어 있는데(3:13a), 특히 기독교론적인 의미가 부각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용서와 관련된 기독교론이다(3:13b). 이 단락은 선명하게 신자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용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ἐχαρίσατο)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스도의 용서는 이미 앞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χαρισιάμενος)”(2:13). 이것은 윤리가 신학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가장 명료한 표현이다. 이로써 그리스도와 신자의 일치에 대한 교훈은 절정에 달한다. 그리스도는 신자가 일치해야 할 삶의 모범이다.⁴⁸⁾ 신자의 행위의 설정과 실행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향에서부터 성장하고 일치한다.⁴⁹⁾

또한 미덕 목록 끝에는 명사문이 하나 더 부가되어 있는데(3:14), 이것도 역시 윤리와 신학의 결합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바울은 다섯 가지 미덕을 열거한 후에 용납과 용서를 첨부하고, 거기에 사랑에 관해서 부연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된다. 사랑은 “온전함의 띠”(σύνδεσμος)⁵⁰⁾이다. “띠”는 골로새서에서 기독교론과 교회론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48) O'Brien, *Colossians*, 202; Hemphill, “Christian Life,” 149.

49) Schrage, *Ethik des Neuen Testaments*, 255.

50) “온전함의”(τῆς τελειότητος)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온전함으로 이끄는”)으로 보는 것이 좋다(1:28을 참조하라). Cf. Lohse, “Christologie und Ethik im Kolosserbrief,” 168: “Wer an Christu glaubt, der erweist diesen Glauben in der Liebe zu allen Heiligen (1:4), die durch das Band der Vollkommenheit, die vom Geist gewirkte ἀγάπη (1:8), zusammengeschlossen sind (3:14; 2:2).”

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1:18).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가 양분을 공급받고 연합하며⁵¹⁾,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2:19).⁵²⁾ 사랑은 교회의 결합에 기반이 되며 그것을 유지한다.⁵³⁾ 이렇게 골로새서의 윤리적 교훈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출발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론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⁵⁴⁾ 그러므로 기독교론은 교회론을 이끌며, 교회론은 윤리를 이끈다. 역으로 말하자면 윤리는 교회론에서 기원하고, 교회론은 기독교론에서 유래한다.

끝으로 미덕 목록과 함께 두 개의 3인칭 명령법이 제시된다(3:15-17). 그 가운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관한 진술이다(3:15). 여기에서도 기독교론과 교회론이 배경이 된다. 우선 신자들이 평강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이루셨기 때문이다(1:20). 그리스도 찬양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εἰρηνοποιήσας). 또한 신자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교회론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1:18).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골로새서의 기독교론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 기독교론(Head-Christology)이며 이와 더불어 몸 교회론(Body-Ecclesiology)이 형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골로새서 두 구절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첫째로 골로새서 1:18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표상되며, 교회

51)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συμβιβασθέντες ἐν τῇ ἀγάπῃ)는 사상은 골로새서 2:2에도 언급된다.

52) 이런 점에서 사랑을 그리스도의 형상(Christ-shaped)이라고 부를 수 있다. Cf. A. J. M. Wedderburn, “The Theology of Colossians,” A. T. Lincoln and A. J. M. Wedderburn, eds., *The Theology of the Later Pauline Lett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56.

53) Schrage, *Ethik des Neuen Testaments*, 256.

54) Hemphill, “Christian Life,” 146.

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상된다. 이 표상이 의미하는 것은 유기적이며 생명적인 관계를 토대로 하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전적 의존이다.⁵⁵⁾ 둘째로 골로새서 2:19는 이 단의 문제를 지적하는 중에 다시 한번 머리와 몸에 대하여 언급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 개념으로서 머리가 계속적인 생명과 양육의 근원이 된다는 사상과 몸을 유기적 전체로 만드는 통일성의 근원이 된다는 사상이다.⁵⁶⁾ 그런데 머리 기독교론과 몸 교회론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주론적인 의미이다.⁵⁷⁾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시라면, 그의 몸으로서 그와 관련된 공동체도 역시 우주적으로 기능하는 무엇으로 간주되어야 한다.⁵⁸⁾ 다시 말해서 우주론적인 머리-몸 개념은 교회를 확장된 그리스도(Christus prolongatus)로 결정한다.⁵⁹⁾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으로 자신의 통치를 실행하는 영역이 몸 곧 교회이다. 이 몸의 머리에 그 지체들은 종속하고, 순종하는 삶을 요청받는다.⁶⁰⁾ 바울이 교회에게 윤리(책임)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몸-

55) R. T. O'Brien, "The Church as a Heavenly and Eschatological Entity," D. A. Carson, ed., *The Church in the Bible and the World* (Exeter: Paternoster; Grand Rapids: Baker, 1987), 108.

56) O'Brien, "The Church as a Heavenly and Eschatological Entity," 109.

57) J. D. G. Dunn, " 'The Body of Christ' in Paul," Michael J. Wilkins and Terence Paige, eds., *Worship, Theology and Ministry in the Early Church: Essays in Honor of Ralph P. Martin*, JSNTSS 87 (Sheffield: JSOT Press, 1992), 157-160은 그리스도의 몸이 우주적 교회라는 사상은 스토아 철학과 유사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가 몸과 마찬가지로 유기적 통일체이며 우주의 각 요소는 그것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58) Dunn, "The Body of Christ," 159.

59) Schenk, "Forschung," 3346.

60) Lohse, "Christologie und Ethik im Kolosserbrief," 166; "Dem Haupt dieses Leibes sind seine Glieder unterstellt und darum zu gehorsamem Wandel gerufen."

머리 관계 때문이다. 신자들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교회론과 기독교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인 교회는 당연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합당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윤리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몸으로 기능하기 위한 윤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존재가 형성되며 성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표현하며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신자의 윤리이다. 교회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3인칭 명령법은 그리스도의 말씀(λόγος)에 관한 진술이다(3:16).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자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ἐννοικείται)고 말한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신자들의 삶 가운데 실행될 것이다.⁶¹⁾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자의 삶을 위한 표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때 신자는 윤리의 정로를 간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자들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기”(κατοικεῖ, 2:9) 때문이다(참조, 1:19).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1:25)과 동일하다면⁶²⁾,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 곧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1:25-27),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자들 가운데 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자의 윤리는 기독교론에서 출발하며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은 기독교론의 실천적 연장이다. 윤리 목록 단락에 의하여 신학은

61) O'Brien, *Colossians*, 207.

62) Pokorný, *Kolossar*, 147.

실천으로 옮겨진다. 골로새서에서 기독교론은 윤리 목록 그룹에 의하여 실천적으로 적용된다.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론에서 하나님의 자녀 윤리가 나오며, 우주론적 기독교론에서 인간론적 윤리가 나오며, 형상 기독교론에서 변형 윤리가 나오며, 만유 기독교론에서 총괄 윤리와 평등 윤리가 나오며, 머리 기독교론에서 몸 윤리가 나온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은 신자들의 삶에 기독교론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2.2. 윤리 목록 그룹에 의한 이단 논박

이제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에 들어있는 이단 논박의 성격을 살펴보자. 골로새서는 이단 문제를 신학적으로 심각하게 다룬다. 골로새서의 윤리는 신학을 표현하고, 골로새서의 신학은 이단을 논박한다는 점에서⁶³⁾, 골로새서의 윤리는 이단 논박과 무관하지 않다.⁶⁴⁾ 골로새서의 윤리는 신학 표현과 이단 논박이라는 양면적인 배경을 가진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바울의 윤리 목록은 이단 문제라는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다.⁶⁵⁾ 골로새 신자들이 이단에게서 영향을 받은

63) Cf. Schenk, "Forschung," 3349에서 Schenk가 지적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골로새서는 "방침을 제시하는 논박서"(eine programmatische Streitschrift)이다. 그는 이 논박서가 이단 그 자체에 대한 투쟁(Bekämpfung)이라기보다는 기독교 독자들을 위한 면역(Immunisierung)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3350).

64) Martin, *By Philosophy and Empty Deceit*, 191-204는 자신의 논지를 따라 골로새서의 윤리는 견유학파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65) Pace Easton, "Ethical Lists," 8. 그는 대부분 신약성경의 악덕 목록은 전승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어있는 문맥과 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E. Lohse, *Die Briefe an die Kolosser und an Philemon*, KEK 9. 2, 14. Auflage (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1968), 197: "Die Paränese ist weithin in traditionellen Aufzählungen und Wendungen gehalten und nimmt nirgendwo auf bestimmte Gemeindehältnisse Bezug."

이유는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로 인생의 모든 영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의 위협적인 세력들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막을 추구했다. 골로새교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스도가 만유를 다스리는 주로 선포되는 우주적인 기독교론이 전개되었다.⁶⁶⁾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골로새의 이단을 논박하기 위해서 기독교론을 제시하였다.⁶⁷⁾ 골로새서의 기독교론은 이단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한다. 따라서 기독교론에 바탕을 둔 골로새서의 윤리는 결국 이단을 대항/극복하는 윤리이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윤리 목록이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듯이⁶⁸⁾,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도 이단 문제라는 특별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골로새 이단의 정체는 많은 논쟁을 일으킨 주제로⁶⁹⁾ 어느 한 가

66) Lohse, “Christologie und Ethik im Kolosser brief,” 159. 그래서 우주적인 기독교론은 1장의 그리스도 찬양시와 2장의 이단 논박에서 잘 나타난다.

67) R. Yates, “Christ and the Powers of Evil in Colossians,” E. A. Livingstone, ed., *Studia Biblica 1978, III. Papers on Paul and Other New Testament Authors. Sixth International Congress on Biblical Studies, Oxford 3-7 April 1978*, JSNT.SS 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0), 461은 바울이 골로새 신자들에게 이단 사상을 경고하면서 보여준 응답이 특히 기독교론에서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발전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마치 바울에게 이단 논박을 위해서 비로소 기독교론이 형성된 것처럼 이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기독교론을 가지고 있었고 이단 논박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탄탄한 기독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 논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이단 문제 때문에 골로새서에 기독교론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68) Furnish, *Theology and Ethics in Paul*, 84: “The apostle’s integration of more or less traditional lists of virtues and vices into particular contexts is particularly striking.”

69) 골로새 이단의 정체에 대한 논쟁은 H. W. House, “Heresies in the Colossian Church,” *BibSac* 149 (1992), 45-59; R. E. DeMaris, *Colossian*

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⁷⁰⁾ 그러나 골로새서에 근거하여 골로새 이단의 정체를 대략적으로 구성해볼 수 있다. 골로새서 2:4에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진술로부터 골로새 이단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속이다”(παραλογίζεσθαι)와 “교묘한 말”(πιθανολογία)에서 공통적인 어근(λογ-)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골로새 이단과 관련하여 설교 또는 선포가 문제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⁷¹⁾

골로새서 2:8은 골로새 이단의 모습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소개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라 너희를 사로잡는 자가 아닌지 주의하라.” 이 구절에 의하면 골로새 이단은 “사로잡는 자”이다. 여기에 두 전치사 “...으로”(διὰ)와 “...따라”(κατὰ)가 조합되면서 골로새 이단의 특징이 네 가지로 소개된다. 먼저 “...으로” 전치사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 서로 성격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이어서 “...따라” 전치사가 세 번 반복되면서 골로새

Controversy Wisdom in Dispute at Colossae, JSNT.SS 96 (Sheffield: JSOT, 1994), 18-40, 73-97; Smith, *Heavenly Perspective*, 19-38을 비교하여 참조하라.

70) 골로새 이단의 정체를 한 가지 현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혼합주의(syncretism)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House, “Heresies in the Colossian Church,” 59. 골로새 이단은 주로 유대주의와 헬레니즘의 혼합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때때로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기도 한다. C. E. Arnold, *The Colossian Syncretism. The Interface between Christianity and Folk Belief at Colossae* (Grand Rapids: Baker, 1996)은 골로새 이단을 Phrygia 민속 신앙, 지역 민속 유대교, 기도교로 이루어진 혼합주의라고 생각하면서(243), 그 특징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천사에게 간원하는 마술이라고 주장한다(230: “Fundamental to protective magic was the practice of invoking angels”).

71) Cf. O'Brien, *Colossians*, 97.

이단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스토이케이아(στοιχεία)”⁷²⁾에는 충실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충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정리하면, 골로새 이단은 (1) 철학 곧 헛된 속임수, (2) 사람들의 전통, (3) 세상의 스토이케이아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4) 그리스도와는 관련이 없다.

골로새 이단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골로새서 2:16-23에 나온

72) 골로새 이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스토이케이아(στοιχεία)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논쟁이 있다. 밴드스트라(A. J. Bandstra)는 스토이케이아의 여러 가지 의미(초보적 교훈, 우주의 물질적 요소들 physical elements, 영적 존재들 spiritual/angelic/demonic beings)를 정리한 후, “이 단어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기본적인, 근본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 특별한 의미는 문맥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일시적이며 구원에 비효과적인 것으로 유대인들마저 종속되어 있는 율법과 육체를 가리킨다(*The Law and the Elements of the World*, (Kampen: Kok 1964), 60]. 이런 의미에서 스토이케이아의 주요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의 종교적인 삶”(the religious life of mankind outside Christ)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Yates, “Christ,” 461). 다시 말하자면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스토이케이아는 유대적이건 이교적이건 종교의 초보적인 형태를 의미하거나 기독교 이전 종교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초보적인 영들을 의미하며, 그 외에도 유대교의 율법적 시행들(the legalistic practices)로 추락하는 위험을 가리킨다(Yates, “Christ,” 462, 463). 이런 점에서 골로새서의 스토이케이아를 갈라디아 4:3에 나오는 스토이케이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 리델보스(H. N. Ridderbos)의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 “But we cannot deduce from this that the *στοιχεία* in verses 8 and 20 also refers to angels. Rather, it would seem that the expression of Col. 2:8 is being used synonymously with” the tradition of men, and “objective and abstract, rather than personal and concrete matter”[*The Epistle of Paul to the Churches of Galatia.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53), 153, n. 5]. 다시 말하자면, 스토이케이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굴복했던 법칙들과 질서들을 가리킨다.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스토이케이아에 속한다(154).

다. 첫째로 골로새 이단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비판하며, 절일 준수(절기, 월삭, 안식일)에 시비를 건다(2:16-17).⁷³⁾ 둘째로 골로새 이단은 신자들을 장악하기 위하여 네 가지 방식을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2:18-19). 이것은 네 가지 분사로 묘사된다⁷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의도하며(θέλων), 본 것을 의지하며(ἐμβατεύων) 헛되이 사랑하며(εἰκῆ φυσιοῦμενος),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οὐ κρατῶν). 셋째로 골로새 이단은 세상의 스토이케이아와 관계를 맺으며 세상에서 살면서 금욕주의(“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로 교조화되는데(2:20-21), 이것은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을 따르는 것으로(2:22),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의 제어에는 지혜의 말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유익을 이루는 경외에서는 그렇지 않다(2:23).⁷⁵⁾

바울은 이와 같이 이단에 직면한 골로새 신자들에게 윤리 목록 그룹을 제시하면서 도덕성을 갖추라고 권면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바울의 권면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특별한 도덕적 문제들과 갈등

73)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결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따로 비판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연결사 καί로 묶이면서도 전치사 ἐν이 두 번 사용된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절기, 월삭, 안식일은 구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시비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연결사 ἤ가 세 번 사용되면서도 전치사 ἐν이 한 번 사용된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다.

74) Dibelius는 ἐμβατεύων이 이런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Klaros의 아폴로 신전에서 발견된 비문에 근거하여 골로새 이단이 헬라 신비(Isis)종교를 수용한 자들로 해석하는 그의 견해 때문이다. Cf. M. Dibelius, *An die Kolosser, Epheser, an Philemon*, HNT 12 (Tübingen: Mohr Siebeck 1953), 35.

75) 골로새서 2:23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ἄτινά ἐστιν λόγου μὲν ἔχοντα σοφίας
 ἐν ἐθελοθηρσικία καὶ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καί]
 ἀφειδία σώματος,
 οὐκ ἐν τιμῇ τινι
 πρὸς πλησμονὴν τῆς σαρκός.

을 해결하는 일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⁷⁶⁾ 골로새서에서 이 갈등은 이단에게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문제들이다. 골로새서 윤리 목록 그룹은 바로 이와 같은 이단의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단 논박이 이단 논박적인 윤리를 배태한 것이다. 윤리는 이단 논박의 주요 무기이다. 기독교인이 이단 논박의 이론적 방식이라면, 윤리는 이단 논박의 실천적 방식이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단락(3:1-17)을 살펴보면 “이단에 대한 의도적 반립(in bewußter Antithese zur Häresie)”⁷⁷⁾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골로새 이단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천사적인 증보자들을 설정했던 것처럼⁷⁸⁾, 신자들의 현재 생활은 불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욕주의와 같은 또 다른 윤리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이단의 인기 있는 체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심오한 체험을 제시했다.⁷⁹⁾ 바울은 이단들을 논박하는 문맥에서(2:8-3:4) 그들의 신비적 체험들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발전시켰다. 골로새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2:11),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2:12a),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이다(2:12b). 이단 대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울이 신자들에게 ‘세상의 옛 질서에 대한 죽음’(3:3)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3:1)라는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윤리를 제시한다는 점이다.⁸⁰⁾ 이런 주제들은 이단들을 반격하는

76) Furnish, *Theology and Ethics in Paul*, 91.

77) Lähnemann, *Kolossarbrief*, 55.

78) Cf. Yates, “Christ,” 462.

79) R. A. Argall, “The Source of a Religious Error in Colossae,” *CTJ* 22 (1987), 17: “Paul did not seek to overcome this sought-after experien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reason but through an even more profound experience.”

권면의 기초가 되었다.⁸¹⁾ 바울은 이단의 신학에 대하여는 기독교론으로 논박하고, 이단의 윤리에 대하여는 윤리로 논박한 것이다.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2.2.1. 첫째 악덕 목록 그룹(3:5-7)

첫째 악덕 목록 그룹에서 과거에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었던(3:7) 땅에 있는 지체들(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이라”는 요구(3:5)는 골로새 이단의 체험을 극복할 것을 겨냥한다. 골로새 이단은 윤리와 관련해서 볼 때 금욕적인 생활방식과 세상의 처신에 대한 금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21 f). 그러나 바울의 윤리는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고급한 사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요구하면서 신자들이 골로새 이단처럼 삶을 금욕적인 방식으로 신령화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범주 안에서 삶을 사회화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3:12-17).⁸²⁾ 이런 사회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특히 미덕 목록으로 공동체적 호의를 강조하며(3:12), “서로”(ἀλλήλων) 또는 “피차”(ἑαυτοῖς)라는 용어를 사용하며(3:13), 온전함의 띠인 사랑을 언급한다(3:14).⁸³⁾ 바울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윤리는 골로새 이단보다 훨씬 더 강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바울의 요구를 골로새 이단의 윤리에 대한 대안 윤리라고 부를 수 있다.⁸⁴⁾

80) Cf. O'Brien, "The Church as a Heavenly and Eschatological Entity," 116f.

81) Argall, "Source," 18.

82) Pokorný, *Kolossar*, 140.

83) Standhartinger, *Studien*, 235f.

84) Hemphill, "Christian Life," 126f.

2.2.2. 둘째 악덕 목록 그룹(3:8-11)

둘째 악덕 목록 그룹에 진술된 “이 모든 것”(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언어와 관련된 표현들이다[비방(βλασφημία), 부끄러운 말(αἰσχρολογία)].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라.”(μὴ ψεύδεσθε)가 앞에 나오는 모든 악덕들을 요약하는 것이라면 모든 악덕들은 어느 정도 언행과 관련되어 있는 셈이 된다.⁸⁵⁾ 이런 모든 표현은 골로새 이단을 겨냥하고 있다. 실제로 골로새 이단은 언행(설교 또는 선포)에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이단의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언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한다[2:4, “속이다”(παρalogίζεσθαι)와 “교묘한 말”(πιθανολογία); 2:8, “헛된 속임수”(κενή ἀπάτη); 2:18, “헛되게 자랑하다”(εἰκῆ φυσιοῦσθαι); 2:23, “...에 지혜의 말”(λόγον σοφίας ἐν...)]. 바울은 언어의 문제에서 신자들이 이런 이단과 마주설 것을 권면한다. 그래서 골로새 신자들에게 바울은 이단이 퍼붓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신자들은 항상 복음의 진리 말씀(1:5), 하나님의 말씀(1:25), 그리스도의 말씀(3:16)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언어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것은 그 자체가 골로새 이단의 신비한 체험들에 대한 논박으로 작용하는데⁸⁶⁾, 언어로 표현되는 윤리는 더더욱 그렇다. 윤리 제시는 실천적 이단 논박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떤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3:17),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

85) Moule, *Colossians*, 118은 모든 악덕이 언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너희 입에서”를 “내어버리라.”에 연결시킨다. 이에 대한 Barth/Blanke, *Colossians*, 407, n. 46의 비판을 참조하라.

86) Cf. Dunn, *Colossians*, 223.

을 뉘과 같이 한다(4:6).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말을 할 문이 열리기를 간구했고(4:3),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다(4:4). 이와 같이 새 사람의 언어가 성립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인간의 차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3:11).

2.2.3. 미덕 목록 그룹(3:12-17)

미덕 목록 그룹은 우선 다섯 가지 미덕[공훈(의 마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그 행위를 해야 할 신자들의 신분을 정의해준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3:12).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의 관계성이다. 이 관계성은 앞에서도 부각되었고(3:3), 뒤에서도 다시 언급된다(3:16, 17). 신자는 “하나님 안에”(3:3) 존재하며, “하나님의”(3:12) 사람이며, “하나님께”(3:16, 17) 향한다. 이것은 골로새 이단의 모습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골로새 이단은 철저하게 육체와 사람들과 세상에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체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2:18, 참조, 23),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며(2:8, 22), “세상의” 스토이케이아를 따른다(2:8, 20). 이것을 총괄적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2:20). 골로새 이단이 추구하는 최상의 대상은 고작해야 천사들이다. 그 이단은 “천사 숭배”(2:18)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신자의 윤리는 “세상에서”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골로새 이단의 윤리에 대하여 마주 설 수밖에 없다.⁸⁷⁾

미덕 목록 그룹(3:12-17)에는 골로새 이단을 묘사하는 단락들이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것은 이 단락

87) Cf. Martin, *By Philosophy and Empty Deceit*, 193, n. 1.

이 골로새 이단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첫째 용어는 “겸손”(ταπεινοφροσύνη)이다(3:12). 겸손은 골로새 이단이 강렬하게 소원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2:18, 23). 이 소원은 골로새 이단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네 가지 분사 가운데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이 소원 가운데 겸손이 천사 숭배보다도 먼저 언급된다는 사실에서, 겸손이 골로새 이단에게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골로새 이단의 겸손은 천사 숭배(θρησκεία τῶν ἀγγέλων) 또는 자의적 숭배(ἑθελοθρησκεία)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특정한 제의적 규정들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⁸⁸⁾ 엄격한 의미에서 골로새 이단의 겸손은 윤리적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이었다. 따라서 골로새 이단의 겸손은 천사들 같은 영적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개인적인 겸손일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사회적인 겸손은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다른 겸손을 제시한다. 바울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된 신자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신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겸손을 요구하였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수평적인 겸손을 요구하여 수평적인 관계는 상실하고 영적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겸손만을 소원하는 골로새 이단의 삶을 논박한다.

바울이 골로새 이단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둘째 용어는 “떠”이다(3:14).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론적인 용어이다. 바울은 골로새 이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2:19)고 말했다. 바울은 여기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설명한다. 모든 몸은 머리로부터(ἐξ οὐ)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자란다는 것이

88) Lohse, *Kolasser*, 174.

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이 주는 머리와 받는 몸의 관계가 “마디와 힘줄로 말미암아”(διὰ τῶν ἄφῶν καὶ συνδέσμων) 형성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모든 내용은 머리 기독교론과 몸 교회론의 신학 속에서 진술되었다.⁸⁹⁾ 따라서 “띠/힘줄”은 교회론적인 용어이다. 그런데 골로새 이단은 머리를 붙잡지 않으므로 교회론을 상실하고 있다.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는 진술에서 몸이 성립될 수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몸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띠/힘줄도 없는 것이 된다. 바울은 사랑을 띠/힘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3:14), 결국 골로새 이단은 사랑이 없는 셈이다. 바울이 골로새 신자들에게 사랑이라는 띠/힘줄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은, 뒤집어 이해하면 골로새 이단의 윤리적인 문제를 논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골로새 이단을 염두에 두고 신자들에게 윤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어(βραβεῖον, 3:15)가 이단의 활동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καταβραβεῖον, 2:18)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밝히 드러난다. 바울이 접두어를 붙여 한 단어를 반대의 의미로 변형시킨 데는, 이 단어들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든지 논박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단의 활동은 모두가 개인적인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도움을 입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지혜”(σοφία)는 골로새 신자들에게도, 골로새 이단에게도 사용된 단어이다. 골로새 이단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2:8). 철학은 지혜의 추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의적 숭배와 겸손, 몸의 제어에서 “지혜”를 찾는 골로새 이단의 성격(2:23)과 관련이 있다.⁹⁰⁾ 골로새 이단의 지혜 추구는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영적 존재들에게 도달하려는 개인적인 성취

89) Kim, *Clothing Imagery*, 168.

90) Schenk, “Forschung,” 3353.

에 목적을 둔다. 이에 비해서 신자들의 지혜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다.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모든 지혜로(ἐν πάσῃ σοφίᾳ)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3:16)고 말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의 지혜는 교훈과 권면으로 실천되며, “피차”를 위한 것이다. 교훈과 권면, 그리고 “피차”라는 표현은 모두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신자들의 지혜에는 공동체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참조, 1:28). 이와 같이 바울은 이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들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권면한다. 바울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한편으로는 신자들을 권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단을 비판하는 것은 윤리 권면이 바로 이단 논박임을 보여준다.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은 실천적 이단 논박으로 기능한다. 윤리 목록은 골로새 이단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은 단순한 윤리 권면이 아니라 이단 논박의 성격을 담고 있다. 골로새 이단이 개인적인 신령한 실천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신자들에게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윤리를 강조했다.

결론

초기 기독교는 윤리에 강했다. 강한 윤리는 초기 기독교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초기 기독교의 윤리 강제는 대표적으로 신약성경에 제시된 윤리 목록에서 어렵지 않게 증명된다. 신약성경의 윤리 목록 가운데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두 개의 악덕 목록과 한 개의 미덕 목록)은 잘 갖춰진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로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 그룹은 신학의 확장이며 적용이다. 바울의 신학은 윤리 목록에서 꽃을 피운다.

특히 기독교론은 윤리 목록에서 실천적으로 펼쳐진다. 따라서 신학과 윤리는 상호적으로 동반되는데, 신학은 윤리의 근거이며, 윤리는 신학의 개화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은 이단 논박의 성격을 가진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윤리 목록을 제시하여 골로새 이단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리 목록은 신자들에게 이단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여 이단의 윤리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윤리를 따르게 한다. 요약하면,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은 신학 실천과 이단 논박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윤리의 약화는 단순히 종교다운 품위의 저하라는 문제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결국 신학을 실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단의 조잡한 행실을 막지 못하는 두 가지 나쁜 결과도 초래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윤리를 다시 강력하게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가 개인적인 성격을 넘어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신학의 실천으로 기능을 하고 이단의 방지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윤리를 회복할 때 신학이 바르게 표현되고 이단이 제대로 극복된다.

<주요어>

골로새서, 윤리 목록, 기독교론, 이단 논박, 교회

<Key Words>

Colossians, ethical lists, Christology, refutation of heresy, church

참고문헌

- Argall, R. A., "The Source of a Religious Error in Colossae," *CTJ* 22 (1987), 6-20.
- Arnold, C. E., *The Colossian Syncretism. The Interface between Christianity and Folk Belief at Colossae*, Grand Rapids: Baker, 1996.
- Bandstra, A. J., *The Law and the Elements of the World*, Kampen: Kok, 1964.
- Barth, M. and Blanke, H., *Coloss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eck, A. B., trans., AncB 34B, Doubleday: The Anchor Bible, 1994.
- DeMaris, R. E., *Colossian Controversy Wisdom in Dispute at Colossae*, JSNT.SS 96, Sheffield: JSOT Press, 1994.
- Dibelius, M., *An die Kolosser, Epheser, an Philemon*, HNT 12, Tübingen: Mohr Siebeck, 1953.
- Dunn, J. D. G.,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Carlisle: Paternoster, 1996.
- Dunn, J. D. G., "The Body of Christ' in Paul," Michael J. Wilkins and Terence Paige, eds., *Worship, Theology and Ministry in the Early Church: Essays in Honor of Ralph P. Martin*, JSNTSS 87, Sheffield: JSOT Press, 1992, 146-162.
- Easton, B. S., "New Testament Ethical Lists," *JBL* 51 (1932), 1-12
- Furnish, V. P., *Theology and Ethics in Paul*, Nashville: Abingdon, 1968.
- Harnack, A. von, *Die Mission und Ausbreitung des Christentums in den ersten drei Jahrhunderten*, 4. Aufl., Leipzig: Hinrische Buchhandlung, 1924
- Hemphill, B. C., "The Shape of the Christian Life: An Analysis of Colossians 3:12-15 and the Role of the Virtues in Pauline Ethics," Ph.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3.
- House, H. W., "Heresies in the Colossian Church," *BibSac* 149 (1992),

45-59

- Kim, J. H., *The Significance of Clothing Imagery in the Pauline Corpus*, JSNT.SS 268, London/New York: Clark, 2004.
- Lähnemann, J., *Der Kolosserbrief. Komposition, Situation und Argumentation*, SNT 3, Gütersloh: Gerd Mohn, 1971.
- Lohse, E., "Christologie und Ethik im Kolosserbrief," W. Eltester und F. H. Kettler, eds., *Apophoreta. Festschrift für Ernst Haenchen zu seinem siebenzigsten Geburtstag am 10. Dezember 1964*, BZNTW 30, Berlin: Töpelmann, 1964, 157-168
- Lohse, E., *Die Briefe an die Kolosser und an Philemon*, KEK 9.2, 14. Auflage, 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1968.
- Martin, T. W., *By Philosophy and Empty Deceit. Colossians as Response to a Cynic Critique*, JSNT.SS 11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Maston, T. B., *Biblical Ethics: A Guide to the Ethical Message of the Scriptures from Genesis through Revelation*,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2.
- Moule, C. F. D.,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2; org. ed. 1957.
- O'Brien, P. T., "The Church as a Heavenly and Eschatological Entity," D. A. Carson, ed., *The Church in the Bible and the World*, Exeter: Paternoster; Grand Rapids: Baker, 1987.
- O'Brien, P. T., *Colossians, Philemon*, WBC 44, Waco: Word Books, 1982.
- Pokorný, P., *Der Brief des Paulus an die Kolosser*, ThHNT 10/I,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7.
- Ridderbos, H. N., *The Epistle of Paul to the Churches of Galatia.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53.
- Schenk, W., "Der Kolosserbrief in der neueren Forschung (1945-1985)," ANRW 25.4, 3327-3364.
- Schrage, W., *Ethik des Neuen Testaments*, NTD Erg. 4, 5. Auflage, Göttingen:

- Vandenhoeck Ruprecht, 1989.
- Schweizer, E., “Gottesgerechtigkeit und Lasterkataloge bei Paulus (ink. Kol und Eph),” J. Friedrich, W. Pöhlmann, und P. Stuhlmacher, eds., *Rechtfertigung. Festschrift für Ernst Käsemann zum 70. Geburtstag*, Tübingen: Mohr Siebeck/Göttingen: Vandenhoeck Ruprecht, 1976, 461-477.
- Schweizer, E., *Der Brief an die Kolosser*, EKK 12, Zürich: Benziger, 1976.
- Smith, I. K., *Heavenly Perspective: A Study of the Apostle Paul’s Response to a Jewish Mystical Movement at Colossae*,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326, London/New York: Clark, 2006.
- Standhartinger, A.,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es*, S.NT 94, Leiden / Boston / Köln: Brill, 1999.
- Vögtle, A., *Die Tugend- und Lasterkataloge im Neuen Testament. Exegetisch, Religions- und Formgeschichtlich untersucht*, Neutestamentliche Abhandlungen Bd. 16, Heft 4/5, Münster: Verlag der Aschendorffschen Verlagsbuchhandlung, 1936.
- Wedderburn, A. J. M., “The Theology of Colossians,” A. T. Lincoln and A. J. M. Wedderburn, eds., *The Theology of the Later Pauline Lett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71.
- Yates, R., “Christ and the Powers of Evil in Colossians,” E. A. Livingstone, ed., *Studia Biblica 1978, III. Papers on Paul and Other New Testament Authors. Sixth International Congress on Biblical Studies, Oxford 3-7 April 1978*, JSNT.SS 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0, 461-468.

<초록>

골로새서 윤리 목록 단락(골 3:1-17)의 역할

조병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초기 기독교가 윤리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이 여러 곳에서 윤리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발견된다. 본 논문은 특히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골로새서 3:1-17에는 두 개의 악덕 목록과 한 개의 미덕 목록을 핵으로 하는 윤리 지침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지침에는 이미 앞에서(1장과 2장) 언급된 기독교론을 전개하고 이단을 논박하는 데 사용되었던 여러 사상들과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윤리 목록이 앞의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골로새서 윤리 목록은 한편으로 기독교론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단을 실천적으로 논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골로새서의 윤리 목록은 신학(기독교론)적용과 이단 논박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골로새서에서 기독교론은 윤리 목록에서 실천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윤리 목록은 신학의 표현이다. 동시에 골로새서는 신자들에게 윤리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이단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 목록은 이단에 대한 논박이다. 윤리 지침으로 신학표현과 이단 논박에 이바지했던 초대 기독교는 현대 기독교에 윤리를 회복해야 신학이 바르게 표현되고 이단이 제대로 방지된다는 도전을 강하게 제기한다.

<Abstract>

Roles of the Colossian Ethical Lists(Col 3:1-17)

Dr. Byoung Soo Cho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The ethical lists which are found in several places in the New Testament point out that the early church was an exceedingly ethical commun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take the Colossian ethical lists into consideration, and in particular the roles they play. Col 3:1-17 is a cluster of ethical guidelines, centering on both two vice-lists(Lasterkataloge) and a virtue-list(Tugendkatalog). It is of great importance for Paul to repeat the similar thoughts and vocabularies, which he mentioned already in chapter 1 and 2, in order to reject the Colossian heresy as well as to develop his Christology. This fact reveals that the Colossian ethical lis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ntext in which they occur. On the one hand, they apply theology(esp. Christology) to the practical life of Christians. On the other hand, they refute the practices of false teachings. In other words, they seem to play two roles: the application of the theology and the refutation of the heresy. Since the Christology in Colossians is brought into practice by the ethical lists, the latter is the very expression

of the former. Simultaneously, the ethical lists obviously function polemically against the heresy since they attack its ethical errors. The early church, which strove to preserve Christology to refute the heresy on the basis of her ethical directions, vitally challenges us to recover strong Christian ethics to express the theology properly and to wrestle with the modern heresies at full strength.